

**소명은 제가 하느님의  
자녀로서 하는 모든  
것을 하나로 만들어  
주었습니다.**

하느님의 부름심은 집단적인  
부름이 아닙니다. 그것은 하느  
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부름  
입니다.

2025-6-9

소명을 알게 하는 자동 관문이 있습  
니다.

하느님의 부르심은 집단적인 부르음이 아닙니다.

그것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부르임입니다.

오푸스데이를 만난 후,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느님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

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이제 제 삶은 작은 조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. 교회에 가서, 친구들과 함께 있어, 학교 가요...

하지만 한 삶은 다른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.

그래서 부르심은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somyeongeun-jega-haneunimyi-  
janyeoroseo-haneun-modeun-geoseul-  
hanaro-mandeuleo-jueossseubnida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omyeongeun-jega-haneunimyi-janyeoroseo-haneun-modeun-geoseul-hanaro-mandeuleo-jueossseubnida/)  
(2026-2-18)